새단장 농촌 빈집 무료로 빌려드려요

정읍시, 빈집 재생 프로젝트 20일까지 6동 임차인 모집 취약층 등에 5년간 무상 임대

"빈집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정리해 무상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 치된 농촌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희망하우스 빈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농촌지역 고 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수 리해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 계층 가구, 귀농·귀 촌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 만원의 비용을 지원, 보일러 설치와 화장실 정비, 창호 교체 등 새로 단장하면 이후 빈집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의무기간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임대 자(빈집 소유자)를 모집, 빈집의 노후도와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빈집 6동을 선정하고 이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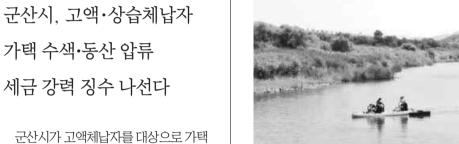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을 정리해 무상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무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덕천면 소재 농촌 빈집. 〈정읍시 제공〉

일까지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임차인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과 귀농·귀촌인, 지방 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 자, 장애인 등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마을 경관 훼 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주거 취약 계층 이웃들과 귀 농·귀촌인 정착 지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 징수 활동을 추 진한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북도와 시· 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 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 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 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 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의 사업장 과 거주지를 방문해 지방세 납부 독려를 하기도 했다.

시는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함께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이 압류되어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도 나선다.

김창희 군산시 시민납세과 계장은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강력 징수체계에 돌입했다"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카약·카누 무료체험교실 운영

순창군이 수상레저문화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유등면 화탄마 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 상레저기구 체험교실'을 무료 운영한다. 〈사진〉

해양수산부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 저연맹이 주관하는 수상레저기구체험교실은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체험교실에서는 래프팅가이드의 수상안전교육, 노 젓는법 등을 교육받은 후 목재카누·카약 체험을 할 수 있다. 우천시 운영은 중단된다.

중학생 이상(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탑승 가능)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예약이 필

수다. 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운영한다.

순창의 섬진강은 물이 맑고 물살이 세지 않아 카누, 카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만12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특히 카누체험이 열리는 유등면 화탄마을부터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두 곳을 연계해 다녀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 (063-650-1772)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장양근기자 jyg@kwangju.co.kr

익산시, 557억원 투입 상수도 현대화

78km 구간 노후 상수관 교체 ICT기술 접목 관리시스템 구축

익산시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나선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K-water 전북지역협력 단과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 일환으로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에 착수했다.

효율적인 급수지역 관리를 위해 전체 급수구역을 53개 소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 구축 공사와 중앙동 일대를 시작으로 78km 구간에 대한 노후 상수관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ICT기술을 접목해 수질과 수압, 유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유시관리시스템 등을 구숙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시와 K-water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위· 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 비 557억원을 투입해 전 지역 블록시스템을 구축 하고 신흥급수지역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인 만큼 공사 현장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iy@

내장산국립공원 멸종위기 '백양더부살이' 개화

공원사무소 출입금지 지역 지정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멸종위기야생식물(2급) 인 '백양더불살이'가 개화했다.

'백양더부살이'는 현삼목 열당과에 속하는 관속 식물로 건조한 길가나 하천 변에서 쑥뿌리에 반기 생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과거 내장천변에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서식했으나 하천정비와 도로개통 등이 이어지며 서식지가 사라지고 현재는 극소수 개체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백양더부 살이가 자생하는 곳은 통행만으로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제 한하고 있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내장산국립공원에 핀 '백양더부살이' 꽃

남원시 19일까지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소소한배움터·활동가 양성과정

남원시가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지구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소소 한배움터+활동가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9일까지 모집하며 분야는 ▲일자리창출 형 꽃공예 공방교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치유교 실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과정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 업 '남원 동문밖 마을! 불어라 꽃바람!'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험형 교 육을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할 예정 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 수하면 된다. 접수는 대상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요청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가꾸는 도시재생사업의 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자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GREEN GOOKE PRIME EVEN 1201

TELOTO COMPANIE EVEN 1201

SERVICE COMPANIE COMPANIE EVEN 1201

SERVICE COMPANIE C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